

‘교사들의 눈을 통해 본 나’ 인간 됨됨이 평가

■대입 큰 변수, 추천서

8월1일 UC와 공공지원서가 오픈되며 대입지원서 준비를 해야 하는 시니어들의 마음을 더욱 바쁘게 재촉하고 있다. 개학이 되면서 대입준비에 여념이 없는 시니어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대입 추천서이다. 어느 선생님께 추천서를 부탁해야 좋을까? 언제 부탁해야 하나? 특히 조기지원을 앞둔 시니어들은 누구보다 더욱 긴장하고 있다. 10월 말까지 사립대 조기지원이 대부분 마감하기 때문이다. 조기지원이든 일반지원이든 많은 사립대 지원은 대부분 각 대학에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입에서 중요한 요소들 중에 내신성과 함께 SAT 혹은 ACT 점수, AP 점수 등 아카데미 점수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 외에 지원자의 인간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는 에세이와 추천서 그리고 인터뷰가 있다. 특별히 지원자가 준비하는 것이 아닌 이 추천서는 본인인 하는 것이 아니라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추천서는 지원자가 다녔던 고등학교 담당 카운슬러와 교사에게 부탁해야 한다. 탐 명문대학을 겨냥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시니어들 중 자신과 같은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누구인지 대충 알고 있으면 전략을 세울 수 있어 유리하다.

학교 성적도 비슷하고 표준교사 성적도 비슷하고 서로 다른 영역의 과외활동에서 저마다 내로라하는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동료들과 지원 전략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탐 명문대학들은 같은 고교생들 중 조기지원에서 한꺼번에 많은 학생에게 입학 허가를 하기 힘들어한다. 이럴 때 교사의 추천서가 그것을 판가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대학입학 사정관들은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를 지원서를 통해 하고 있다. 지원서에서 보이는 내신 성적은 지원자의 성실함을 볼 수 있고, 과외활동은 지원자의 열정과 관심도를 알아본다. 그 학생의 개성과 인성은 퍼스널 에세이에서 드러난다.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추천서를 보며 교사들의 눈을 통해 객관적으로 비춰지는 학생들의 평가에 주목하고 있다. 지원자가 직접 자신에 대해서



어드미션 매스터즈 주최 대입 세미나에서 한 강사가 추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1학년 때 좋은 성적 낸 코어과목 교사 바람직 대학 전공 관련 평소 친분 있는 관계유지 도움

표현할 수 있는 에세이 파트와는 달리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원자의 평가로써 지원자가 교내에서 어떤 학생이었는지 앞으로 세상에 나가 어떤 모습으로 커나갈 수 있는 학생인지를 추천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이기적인 모습의 학생인지, 자신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 도움을 줄 자세가 되어 있는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은 있는 지 등을 표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매력 있는 학생으로 아카데미와 관련된 면뿐 아니라 그 지원자의 됨됨이를 포함한 한 인간을 전체적인 그림의 중요한 퍼즐로 살펴 볼 수 있는 섹션이 바로 추천서인 것이다.

▲어떻게 추천서 부탁을 해야 할까?
일부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고유 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니어들의 대학진학을 위해 추천서를 요구할 경우 대부분의 고등학교에는 특별한 제도가 있다. 그럴 경우 선생님께 직접 품을 달라고 하거나 학교 웹사이트에 올려놓았다면 그것을 다운로드해서 그것에 맞추어 준비하면 될 것이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학생 자신이 그것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듯 훌륭한 추천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추천서를 써줄 교사 선정
대학별로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각 대학별로 몇 개의 추천서를 어떤 과목의 교사에게 받아야 하는지 체크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11학년 때 좋은 성적을 받은 코어 서브젝트를 가르치고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교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일부 학생들은 9학년 때 혹은 10학년 때 자신을 가르쳤던 교사가 가장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도 알기 때문에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추천서를 써줄 교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교사들 중에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많은 교사들에게 부탁을 해놓아야 한다. 일단 추천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 후 대입 지원서를 제출할 때 누구의 것을 보낼지를 결정하면 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학업성취도 외에 인간적으로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로서 자신과 마음을 오픈하고 부탁할 수 있는 교사에게 추천서를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추천서는 가능한 한 빨리 부탁하는 것이 좋다. 시간적으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써야 하기 때문이

다.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달 전에 미리 준비하자. 추천서를 부탁할 교사에게 소소한 안부를 전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

만약 엔지니어링을 전공할 계획이라면 수학이나 과학을 가르친 교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인문계열을 지원한다면 영어나, 역사, 외국어를 가르친 교사의 추천서를 받아두면 좋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한 분씩의 추천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출신의 교사라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동문으로서 추천하는 지원자를 싫어할 리 없기 때문이다. 교실 안은 물론 교실 바깥에서도 접촉이 많았던 교사에게 부탁한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학생과 함께 보내서 학생 개인에 대해 소소한 것까지 알고 있는 선생이라면 더욱 좋다. 그 과목에서 A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학생이 가장 좋아하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던 과목의 교사라면 좋을 것이다.

■자신에 대한 프로필 작성

대학생활 큰 그림 제시 ‘맞춤형 추천서’ 받도록

추천서를 부탁하기 전에 학생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과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며 졸업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자신의 수준에서 만족하기보다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자신이 가진 도전정신을 보여주자. 자신만의 주관과 세계관이 분명하다면 이를 적극 표현해 내야 한다. 학교 성적 관리만을 위해서 하는 공부라기보

다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를 극복해 내는 강인함과 끈기 그리고 성실함을 표현해 보자.

본인에게 꼭 맞는 추천서를 써 줄 수 있는 기회를 선생님께 구해야 한다. 추천서를 부탁할 교사에게 학생이 대학교에 가서 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려줘야 교사도 그 틀에 맞춘 맞춤형 추천서를 써 줄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과 친한 선생님이라며 자신에 대해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 착각을 한다. 아무리 3년을 가르쳤더라도 자신이 이룩한 고교시절의 모든 업적을 알기는 힘들다.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등 자신의 프로필을 만드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설득력 있는 추천서를 써줄 교사이니 만큼 지원자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다.

프로필을 모두 만든 다음 추천서를 써줄 교사가 원하는 파일로 담아서 드리는 것이 좋다.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실 수도 있고, 프린트물로 담아서 폴더에 넣어 드려야 할 수도 있다. 교사가 어떤 포맷을 원하시는지 여쭙으면 다음 그것에 맞게 준비해 드린다.

대입에서 추천서로 인해 합격과 불합격의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제니 김
(존스 홉킨스대학 교육학석사)
시니어 어드바이저
(어드미션 매스터즈)
1-866-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수학전문·21년·수천명 가르친 경험으로

확실한 효과

- 평범했던 학생이 수학경시대회 수상자로
- F, D, C였던 학생이 B, A로
- 평범했던 학생이 하버드, 스탠포드 합격자로
- 수학을 싫어했던 학생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으로
- 실수를 너무 자주하고 배운것을 잘 잊어버립니까?
- 공부습관이 나쁘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모릅니까?
- 응용문제를 못하거나 논리적인 전개과정 능력이 없습니까?

TEACHING 법칙

- 자체 개발 교재 사용 또는 학교 교과서 사용
- 교과서 내용위주, 칠판강의
- 선 응용 후 개념의 법칙, 3단계 System
- 1시간 30분씩 1주일에 2번 (또는 1번) 수업

■ LA, OC 뿐 아니라 CA 전지역
그리고 동부지역, 중부지역 등
타주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수많은 성공사례

학생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즉시 (해결) 가르쳐 줍니다

- Test 준비
- Homework
- 모르는 부분만 정확히 즉시 해결
- 근본적으로 수학 잘하도록
- 특별한 상황에 있는 학생
- 특별한 목적, 목표를 가진 학생

- 1:1 개인지도
- 1:2 개인지도
- 특별 Group 지도
- College 학생 특별지도

- 모르는 것만 즉시 배워서 알고 싶을때, 학생이 준비해 오면 어떤 문제라도 즉시 정확히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줍니다.
- 급한경우, 필요한 경우 1번~3번만 개별적으로 배울수 있습니다.

최선의 Class

- (1) 학교진도 공부 Class
6th~12th, preAlg, Alg1, Geom, Alg2, Trig, pre Cal, (AP) Cal.
- (2) Test 준비 Class
6th~12th, preAlg, Alg1, Geom, Alg2, Trig, pre Cal, (AP) Cal.
- (3) 예습, 복습 Class
6th~12th, preAlg, Alg1, Geom, Alg2, Trig, pre Cal, (AP) Cal.
- (4) 특별한 목적, 목표를 가진 학생을 위한 Class
학생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 (5) 근본적으로 수학 잘 하도록 하는 Class
논리적인 사고력, 응용력
- (6) 중학교 총정리 Class
중학 3년 전과정. 총정리 Course
- (7) 고등학교 총정리 Class
고등 3년 전과정 총정리 Course
- (8) SAT I, II 수학 Class
핵심, 요점정리, 꼭 알아야할 공식과 개념 200개

수학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Since 1994
필그림 수학 전문학원
LA / OC (213)384-2400

- LA : (213) 384-2400
- Fullerton : (714) 738-5571